

# -(으)려고

의도, ~하려고, ~하기 위해

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나타냅니다. -(으)러보다 쓰임이 넓어 뒤에 어떤 동사든 올 수 있지만, 명령은 올 수 없다는 고유한 제약이 있습니다.

## ■ 결합 방법

| 어간 종류        | 형태                   | 예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모음으로 끝남      | -려고                  | 사다 → 사려고   |
| 자음으로 끝남      | -으려고                 | 먹다 → 먹으려고  |
| ㄹ로 끝남        | -려고                  | 만들다 → 만들려고 |
| 계획, 막 ~하려고 함 | -(으)려고 하다            | 자려고 해요     |
| 뒤에 명령 불가     | -(으)러나 -(으)려면<br>을 씀 | 사러 가세요     |
| 앞에 시제 불가     | 어간만 씀                | 샀으려고(×)    |

## ■ 언제 쓰나요

-(으)려고는 뒤에 오는 행동의 동기가 되는 목표를 나타냅니다: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아요 (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은다). 두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며, 그 주어는 보통 화자입니다. 자신의 의도는 말할 수 있지만 남의 의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

하다와 결합하면 -(으)려고 하다가 되어 ‘~할 계획이다’ 또는 ‘막 ~하려고 한다’는 뜻이 됩니다: 이제 자려고 해요. 날씨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쓰면 의도의 뜻은 사라지고 ‘곧 ~할 것 같다’는 뜻만 남습니다: 비가 오려고 해요.

기억해야 할 제약은 뒤에 명령이나 청유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. ‘가서 사 오세요’ 같은 문장에는 이 어미를 쓸 수 없으며, 그런 경우는 -(으)러나 -(으)려면을 씁니다. 또한 이 어미 앞에는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

## ■ 예문

- 1 한국에 가려고 돈을 모아요.
- 2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.
- 3 내일 일찍 일어나려고 해요.
- 4 선물하려고 샀어요.
- 5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.
- 6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.

## ■ 비교

**-(으)러**  
-(으)러 뒤에는 반드시 이동 동사가 와야 하지만, -(으)려고는 어떤 동사든 받습니다. 어떤 목적을 위해 어디에 가는 경우라면 -(으)러가 자연스럽습니다.  
빵을 사러 갔어요. (빵을 사러 갔다) / 빵을 사려고 일찍 일어났어요. (빵을 사려고 일찍 일어났다)

**-(으)ㄹ 거예요**  
-(으)려고 하다는 계획이 구체화되는 중이거나 행동이 막 일어나려는 상황을 나타내고, -(으)ㄹ 거예요는 이미 내린 결정을 나타냅니다.  
가려고 해요. (갈까 생각 중이다) / 갈 거예요. (가기로 했다)

**-(으)려면**  
면을 더하면 의도가 조건이 되어 ‘~하고 싶으면’이라는 뜻이 됩니다. 이 형태는 뒤에 조언이나 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.  
사려고 돈을 모아요. (사기 위해 모은다) / 사려면 돈을 모으세요. (사고 싶으면 돈을 모으십시오)

## ■ 주의

- × 빵을 사려고 가세요.
- 빵을 사러 가세요.  
-(으)려고 뒤에는 명령이 올 수 없습니다. 이동 동사라면 -(으)러로, 그 밖에는 -(으)려면으로 고치십시오.
- × 저녁을 만들으려고 일찍 왔어요.
- 저녁을 만들려고 일찍 왔어요.  
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러와 똑같이 짧은 형태를 씁니다.
- × 동생이 유학 가려고 해요. — 다른 사람의 계획을 단정하는 경우
- 동생이 유학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 
의도는 그 의도를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. 남의 계획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주제넘게 들리므로, 표현을 부드럽게 하거나 정보의 출처를 밝히십시오.